

2022

국립태권도박물관 특별전시

백담에서 만남 부처님



KSPD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정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TPF 태권도진흥재단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태권도박물관

(55547)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T. 063-320-0114, F. 063-320-0032

www.tpf.or.kr



발간사

늦습이 깊어져가는 6월, 태권도진흥재단은 시각관선일을 맞이하여
삼포문화 특별 전시 '백담에서 만난 부처님'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개최 중인
전통 문화 관련 전시와 첫 시작입니다.

특별전에서는 사라져 가는 고려불화의 재현에 힘쓰고 계신
고려불교미술연구소의 기술 장호길 원장님의 고려불화 재현 작품과
만해기념관에서 소장 중인 한송운 선생 관련 유물 등을 선보입니다.

고려불교미술연구소의 기술 장호길 원장님과
만해기념관의 진보삼 관장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무사히 진행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자리를 통해 두 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장호길 원장님께서 저의 재단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본인이 작품 활동을 하신 귀한 '천수천안' 작품을 박물관에 기증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와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전시를 위해 관심당면으로 힘을 다한
박물관 김재국 관장과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6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오 용 환

축사

안녕하십니까?

고려불교미술연구소 원장 강호걸입니다.

국립 태권도박물관이 곧 태권도원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재단에서 만난 우리님"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려 불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불교미술의 정수라 할 수 있어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불화는 100여 점 정도이며
그중에서도 국내에는 약 20여 점 정도만 현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40여 년간 우리 전통문화인 고려 불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복원하고 알리는 데 온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를 통해서 고려 불화만이 가지고 있는
미적 아름다움과 화려한 색채, 섬세한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해 주신 태권도진흥재단 오승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2년 6월

고려불교미술연구소 원장 **강호걸**

축사

태권도의 성지, 아산 태권도원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특별전시 ‘배달에서 만난 두철남’이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저희 단체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해 한용운 선생님의 관련 유물을 선보입니다.
한해 한용운 선생님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이며, 시인입니다.
이러한 한용운 선생님의 다양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조선불교유신론』과 『님의 침묵』을 이번 국립태권도박물관 특별전시에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전시를 통해 양 기관의 상호교류가 더욱 더 진전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점을 마련해주신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2022년 6월

말해기념관 관장 권보삼



기산 장호길

現 고려불교미술연구소 원장

現 한국문화유산감정센터 센터장

주요 전시회 개최

- 1983 제1회 연합전시회(최경부 시민회관)
- 1984 제2회 개인전시회(개인 전사당)
- 1985 제3회 개인전시회(화양포 호텔)
- 1990 만다라 작품전시회(롯데 호텔)
- 1993 만다라 작품전시회(일본 동경)
- 1996 고려불화 작품전시회(최경부 여술의전당)
- 2000 고려불화 작품전시회(롯데 호텔)
- 2005 고려불화 작품전시회(윙키빌 호텔)
- 2009 고려불화 작품전시회(일본 동경)
- 2014 고려불화 작품전시회(윙키빌 호텔)
- 2018 고려불화 작품전시회(전북대학교)
- 2019 고려불화 작품전시회(인제 여공서예관)
- 2022 특별전시 『백담에서 만난 부처님』(국립대전도박물관)

주요 수상이력

- 1986 관양미술협회 불화 대상
- 1988 국제미술협회 금상
- 2010 여성시대 주최 대한민국의두문화평화 대상
국가공인(문화체육관광) 부문

주요 불화 제작 목록

- 1997 제주 관음사 갑부 탕화
- 1998 경천사 아미타후불회상도, 칠선도, 산신도, 동광도
- 2001 서울 농림사 대승전 금단청
- 2002 구암사 약사여래후불도, 석가후불회상도, 산신도
서울 국당사 아미타후불회상도, 갑부도, 산신도
- 2003 대진 대각사 약사여래후불도, 산신도, 신증도 39위
서울 대실사 아미타삼존도 벽화 탕화
- 2004 와주 봉림정사 석가후불 회상탱화
- 2005 와주 범종사 약사여래 칠선도, 복선도, 산신도
- 2009 성일 광명사 아미타후불회상도, 석가후불도
도암사 지장도 탕화와
서울 조계사 극락보전시왕도 금니채색
- 2012 인천 범종사 갑부도, 복선도, 지장보살도
- 2014 대구 보리사 석가후불도, 신증 104위 금선벽화화
- 2015 서울 대승사 석가후불회상도, 신증도 39위
- 2016 대진 지장사 지장보살도, 석가후불도
- 2017 제주 약진사 오백나한 칠보계림
- 2020 고성 진흥사 아미타후불회상도, 지장도 금니채색

백담¹⁰⁸에서 만난 무척님

'백담에서 만난 무척님'은 무척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국립백담도박물관에서 기획한 특별전이다. 이 전시는 만해 한용운 관련 유물과 고리문화관 재현한 작품을 전시하고 불교문화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고자 마련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강원도 민체가 있는 사찰 백담사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백담사의 백담은 100개의 못을 뜻하며, 숫자 100에는 '온전함', '완전한'이라는 뜻이 있다. 따라서 백담은 속세를 떠나 온전하게 수행 할 수 있는 곳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해 한용운은 이 백담사에서 「조선불교유신론」을 비롯한 여러 작품을 집필했다. 그리고 기산 장호길(단청장 제887호)도 백담사 가까운 곳에서 40년 넘게 고리문화관 재현하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불교의 사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불화와 글로 표현한 한용운의 유물을 통해 심오한 불교문화를 쉽게 접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ncountering the Buddha at Baekdam

Encountering the Buddha at Baekdam is a special exhibition organized by the National Taekwondo Museum to celebrate Buddha's Birthday. The exhibition showcases Buddhist culture through reproductions of *Goryeo bulhwa*, or Buddhist paintings from the Goryeo Dynasty, and articles left behind by the late Master Han Yong-un.

The title of the exhibition is inspired by Baekdamsa Temple, a Buddhist temple located in Inje-gun, Gangwon-do, Korea. The word *Baekdam* means "the 100th pool in Seoraksan Mountain," while the number 100 symbolizes "completeness and perfection."

Thus, Baekdamsa Temple is a perfect place to focus on self-cultivation, away from the secular world. Master Han Yong-un wrote many works including *Joseon Buddhist Reformation at Baekdamsa Temple*. In addition, the veteran artist Gisan Jang Ho-geol (Cultural Heritage Repair Engineer for Dancheong No. 887), who has been recreating *Goryeo bulhwa* for over 40 years, also bases his creative activities in the vicinity of the temple.

We hope that these Buddhist paintings that convey Buddhist ideologies in the form of pictures and text, along with works by Han Yong-un, provide an opportunity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ofound culture of Buddhism.



고려불화는, 고려 시대에 많이 그려진 불교 미술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섬세한 특징이 있다.

특히, 원색을 이용한 화려한 색채, 명료함을 더하는 금니술(金泥),
 힘 있게 표현된 선은 고려인들의 미적 수준이 높았음을 보여 준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고려불화는 약 160여 점이며 그 중 국내에는 15점이 남아 있다.

고려불화는 광물성 안료를 사용하여 비단 위에 그린다.
 고려불화에 주로 쓰인 지색, 녹색, 적색은 주사朱砂, 석록石綠, 석정石靑을 이용했는데
 주사는 황화 수은 광물, 석록은 공각석, 석정은 남동석에서 뽑은 가루이다.

가두 형태인 안료를 비단 위에 칠하려면 끈인 집착제인 아교가 필요하다.
 고려 화공들은 안료에 아교를 섞어 비단 위에 채색했다.
 선을 그리거나 금씨를 칠 때 사용하는 금니도 금박 가루를 아교에 개어 만들었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매우 융성하여 불화가 많이 그려졌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지금까지 남아 있는 불화의 수는 적고, 그 도상*도 한정적이다.
 남아 있는 고려불화는 대부분 아미타불도, 관음보살도, 지장도이다.

아미타불은 서방淨土에서 증생들을 제도하는 부처로, 여러 부처 중에서 가장 친숙한 이불이다.
 불교를 믿지 않는 이들도 '나무아미타불'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관세음보살로 알려진 관음보살은 아미타불을 도와 고통 받는 증생들 구원하여
 지장보살은 지옥에 빠진 증생들을 구제한다.
 세 부처는 당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현실의 고통이 사라지고
 초상들이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대상이었다.

고려불화가 아름다운 것은 금니로 문양을 그려 화려하게 장식했기 때문이다.
 치밀하고 정교하게 그려진 문양을 보면 화공이 불화를 그릴 때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불화에서 주로 사용한 문양은
 달조원문(唐草圓文), 연화원문(蓮華圓文), 국화원문(菊花圓文) 등의 식물 문양이었으며
 비슷한 문양이 여러 불화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달조원문은 덩굴 식물을 표현한 것이고 연화원문은 연꽃을,
 국화원문은 국화를 표현한 것인데 한 가지 문양만으로 그리기도 했지만
 연화달조원문(蓮華唐草圓文)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문양을 결합하여 그리기도 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 불화에는 나타나지 않는 고려불화의 대표 문양이며 고려불화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 도상(圖相): 종로나 신화적 주제를 표현한 미술 작품에 나타낸 인물 또는 형상.

Goryeo Buddhist Painting

Goryeo Buddha, or Buddhist paintings from the Goryeo Dynasty,

is widely renowned as a beautiful form of Buddhist art.

The harmonization of splendid colors based on the primary colors, the use of shiny *geomul*,

and dynamic lines not only characterize Goryeo-era Buddhist paintings,

but also demonstrate the strong aesthetic sense of Goryeo's people.

Today, only about 160 Goryeo Buddhist paintings remain extant with only

13 remaining in Korea.

Goryeo Buddhist paintings are created by using mineral pigments on silk.

The main colors used in such paintings, namely red, green, and blue,

are obtained from mineral pigments called *jam*, *seokrok*, and *seokcheong*, respectively,

with each made from cinnabar, malachite, and azurite, respectively.

These mineral pigments are used after they are ground into powder form.

To apply the pigment powder on silk, a type of glue called *ogyo* is needed.

Ogyo is a natural adhesive that is mixed with pigment powder to paint on silk.

Geomul, which was used to draw lines or write letters on Goryeo Buddhist paintings,

is also made by mixing gold powder with *ogyo*.

Buddhism flourished during the Goryeo Dynasty as the kingdom's state religion,

which is attributable for the large number of Buddhist paintings created during this time.

Yet only a few Buddhist paintings remain extant today across a limited repertoire.

Most of the existing Goryeo Buddhist paintings consist of *amitabhad*, *gwansambosalda*,

and *jjangde*, which are paintings depicting Amitabha Buddha,

the Bodhisattva Avalokiteshvara, and the Bodhisattva Ksitigarbha, respectively.

Amitabul, the Korean name for Amitayus Buddha, may sound more familiar than the names of other Buddhas.

Even Koreans with little knowledge about Buddhism may recognize the phrase “*Namu Amitabul*.”

Amitabul is the savior of all living beings in the Pure Land in the West, called Sukhavati.

Gwanseumbosal or Gwanseumbosal, which are the Korean names for the Bodhisattva Avalokitesvara,

also serves as a savior of all creatures alongside Amitabul.

Jjangbosal, the Korean name for Bodhisattva Ksitigarbha,

relieves the suffering of all living beings sent to hell.

These three Buddhas are all associated with practical wishes such as the blissful rebirth

in the Pure Land in the West and the alleviation of suffering for all living beings.

This implies that Buddhism was regarded as a religion for all people at the time,

not simply for those belonging to a specific social class.

The exquisite aesthetic of Goryeo Buddhist paintings is partly due to

lavish designs expressed with *geum*. The dense, elaborate gold lines drawn with

geum demonstrate the great efforts that were required to create the work.

The designs used in Goryeo Buddhist paintings are limited in their repertoire and similar designs are repeatedly used in different paintings, mainly consisting of plant designs that include Scroll Roundels depicting vines, Lotus Roundels, and Chrysanthemum Roundels.

Sometimes two and more designs were combined, such as Lotus Scroll Roundels.

Among them, the Lotus Scroll Roundel is a unique design discovered

only in Goryeo Buddhist paintings, differentiating them from

Chinese and Japanese Buddhist paintings as a design that represents Goryeo Buddhist paintings.





01

신수원안

01000

비단 위에 감니재색

크림지 | 국립현대미술관

가흥사 | 서울

신수원안 (01번 관자림보살)



02

관음보살도

100x200

비단 위에 금니채색

소장처 | 고려대학교미술연구소



05

관음보살도

30x290

비단 위에 국화채색
소장처 | 고려대학교미술연구소



04
 수월관음도
 1902110
 비단 위에 궁도시제화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05

회수관음

83x97

백관 회안 국산재의
고정자·그림출근미술연구소



수침관음도 - 선재동자



회수관음 선재동자



06

아이다살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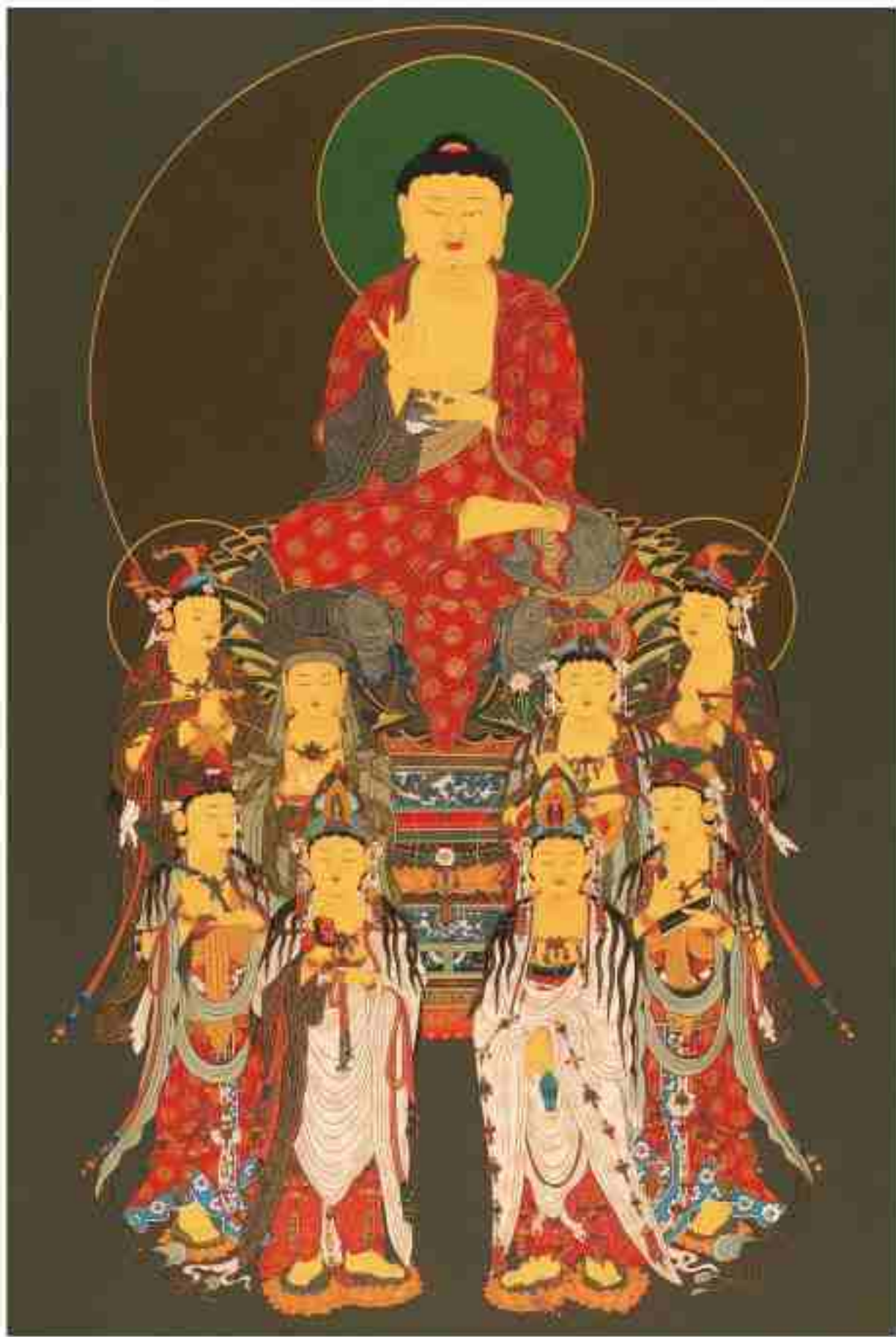
129x225

미국 워싱턴대학

소장처 : 크리콜 미술연구소



아미타삼존도 (관음보살)



07

팔상도

140x100

비단 위에 금사채색

소장처 : 국립중앙박물관



018
석가불도
1095.000
비단 위에 금니채색
순정계수그림공예미술연구소





09

부동영화 (영안회상도)

250x1100

백담 광재 김낙재

소장처 | 고려문화예술연구소



10

지장탱화

273x212

비단 위에 금니채색
조경사 (고려박물관미술연구소)







11

필생영화

275201

기단 위에 금니제대

조각사 1, 2, 3의 발코니 앞면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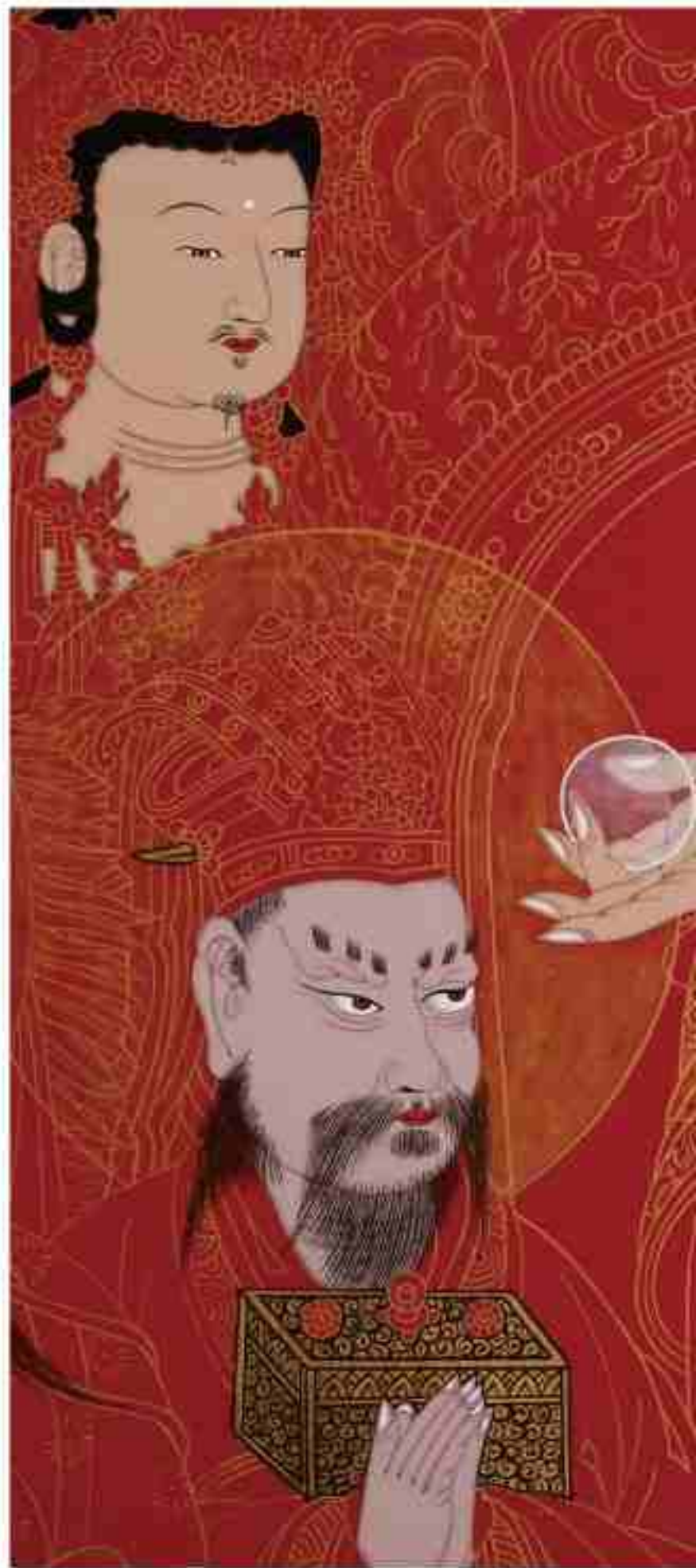


11

종당화 (저장명화)

270x144

비단 위에 금니채색
조각제 | 고려불교미술연구소



홍성희 《자양보살과 부처귀왕》





15

신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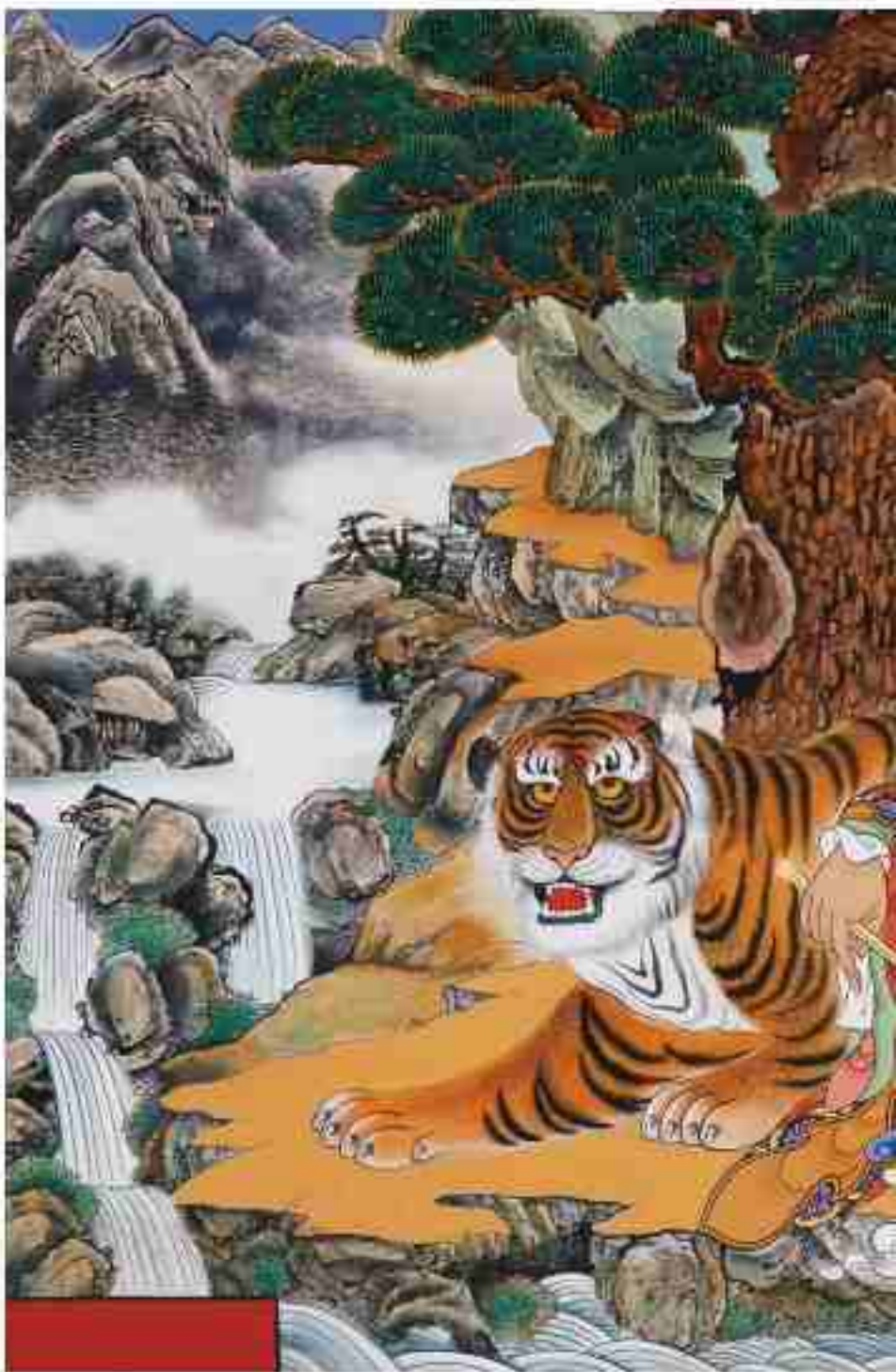
200cmx90

비단 위에 금니채색

소장처: 고려미술연구소

신명도 (국립 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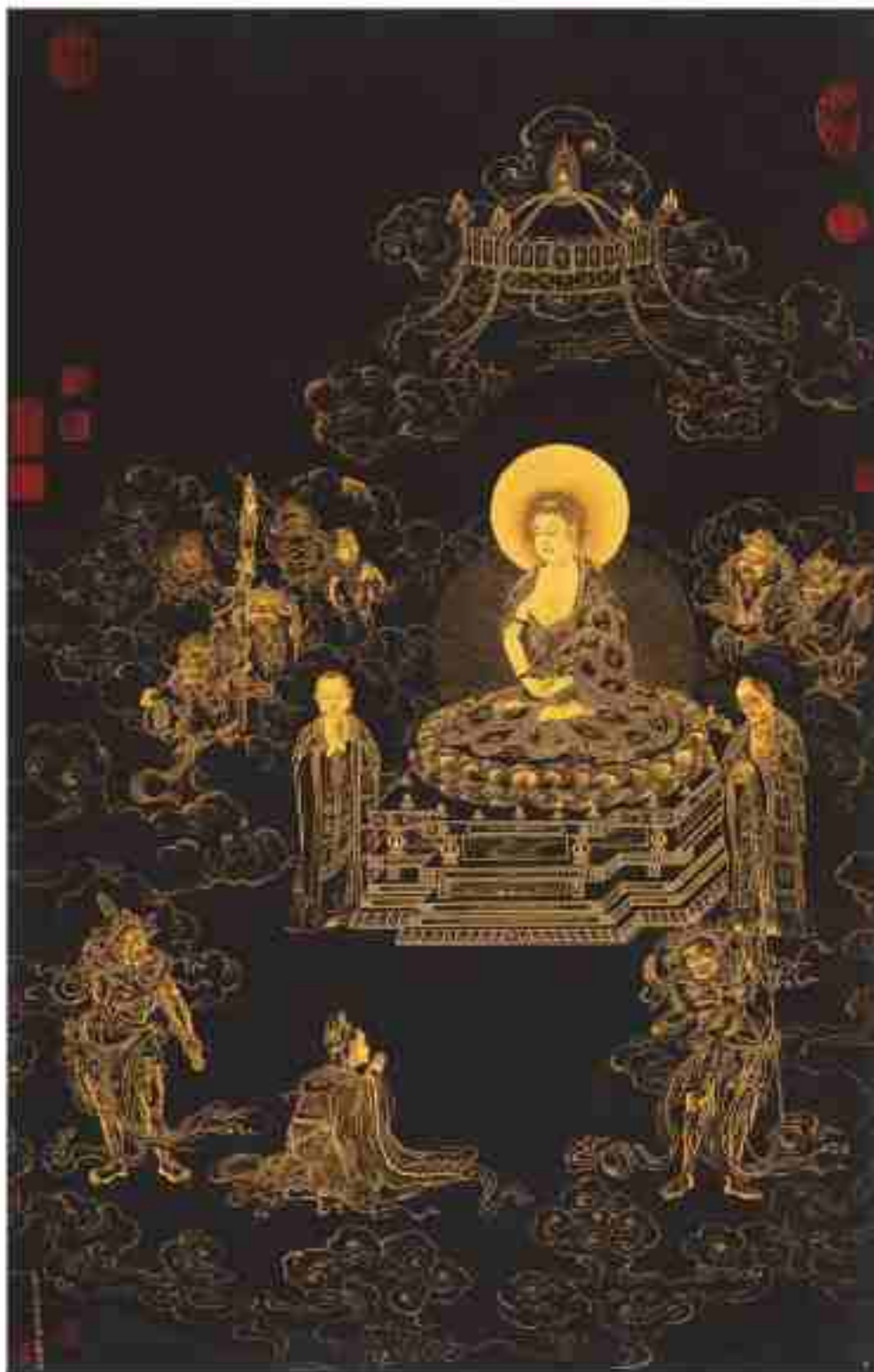
14

한신상화

2004년

백암 위에 글다재목

조성희 | 고려대학교미술연구소



15

석가불도

95x118

비단 위에 금시제화

초상화 | 고려대학교미술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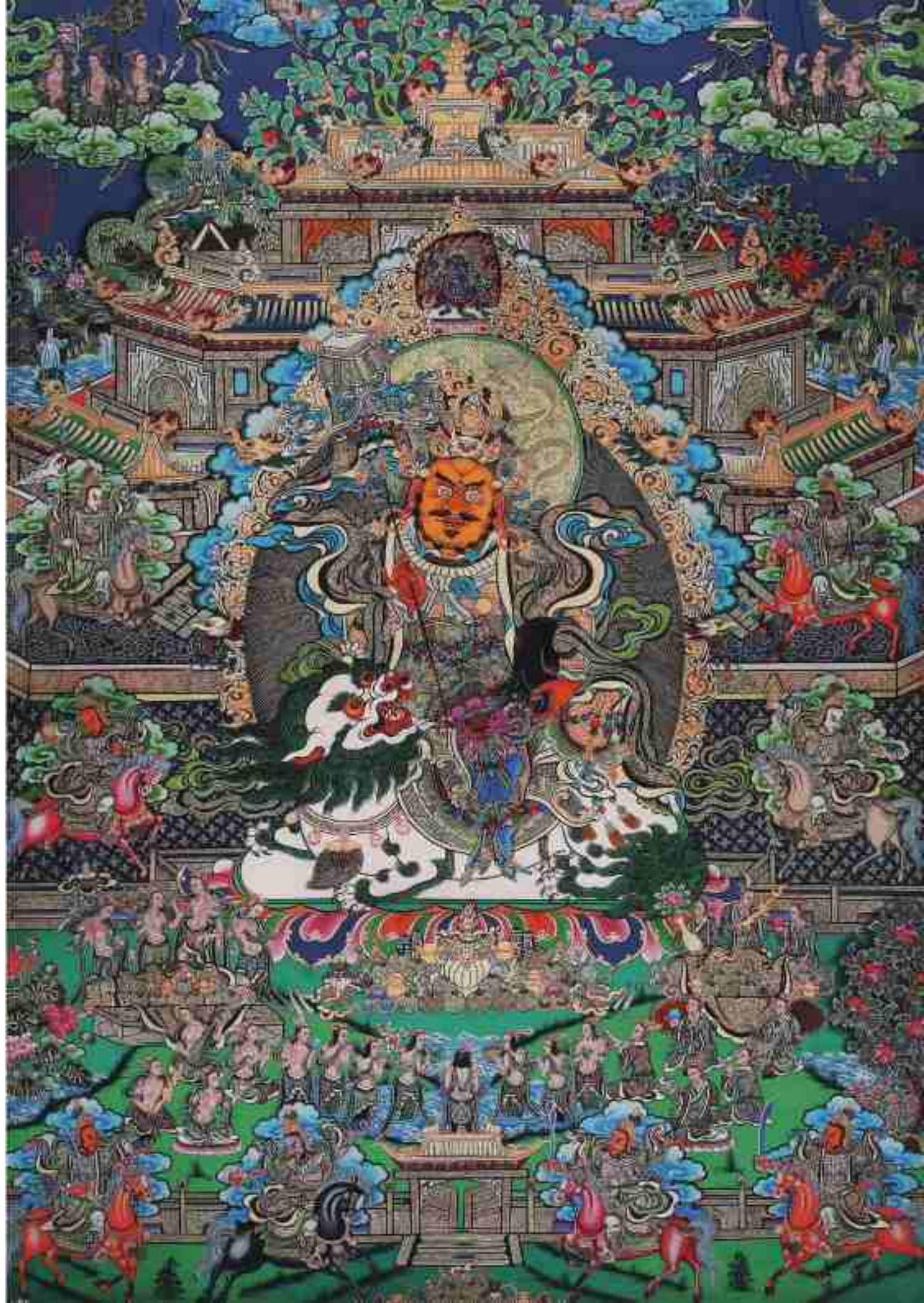
16

달과 선종도

95x118

비단 위에 금시제화

초상화 | 고려대학교미술연구소







17

달가 심관도

181155

미얀 왕이 궁내외에
조상신(크리콜로비출안문조



18

달카 비단

90x90

비단 위에 금니짜

주상직 | 그래픽북의출판부서

달카 비단





만해 한용운 (1879-1944)

시인이자 승려이며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은 1879년에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한정옥이다. '용운'은 불가의 출가하면서 얻은 법명이다.

19세기 조선은 역사적 격변기였기 때문에 한용운도 그의 평안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한용운이 16살이던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중류부도사였던 한용운의 아버지 한정옥은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다 전사했다. 이에 만해 한용운은 출가를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용운은 1905년에 책담사에서 출가하여 법명 용운, 법호 만해를 받았다. 1910년 한일 병합으로 국권이 침탈되자, 조선 불교 또한 일본 조동종의 예속 될 상황에 놓였고 이에 한용운은 순천 송광사에서 승려 설기 대회를 열어, 이를 막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이 사건 이후, 한용운은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을 양성하고 있던 김동삼, 박은석 등을 만나 교류했다.

조선으로 돌아온 한용운은 불교계의 개혁을 주장하여 1913년에 『조선불교유신론』을 간행했다. 이 책에서 한용운은 당시 조선 불교의 비종교적, 비사회적인 요소 및 한습을 없애고, 불교의 근대화를 주장했다. 1914년에는 팔만대장경을 모대로 한 『불교대전』을 편찬했다. 이는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주장한 불교 근대화의 하나였다.

1918년, 잃은이 유일한 민족 사색주의의 열람을 받아 조선에서는 독립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민족 대표 33인중 한 사람이었던 한용운은 1919년 5월 1일에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3년간 옥고를 치르고 1921년에 석방되었다. 석방 이후에도 한용운은 조선 불산 정려 운동을 지원했고, '신간회'와 불교 장입 단체인 '만남'을 결성하는 등 민족 운동 및 독립운동에 동참했다. 1926년에는 시집 『님의 침묵』을 출간했다.

한용운은 일본의 탄압에도 꿋꿋이 독립운동을 했다. 1933년, 서울 성북동에 김우장^{***}을 지었는데, 집을 남향으로 지으면 조선 중독부가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북향으로 지었다고 한다.

만해 한용운은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에 66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Manhae Han Yong-un (1879-1944)

Manhae Han Yong-un was a poet, Buddhist monk, and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His real name was Han Jeong-uk and "Yong-un" was his Buddhist name.

He was born in Hongseong, Chungcheongnam-do in 1879.

He was born during a tumultuous era in the Joseon Dynasty.

As a result, his childhood was likewise a time of hardship.

In 1894, when Han turned sixtee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broke out.

The Joseon royal court ordered Han Bang-jin, the former *doesa* of Chungbunbu and Han Yong-un's father, to suppress the revolution, which led to his death during the campaign.

These circumstances of the times eventually led Han Yong-un to become a Buddhist monk.

In 1905, when he turned 27, Han Yong-un received the Buddhist precepts from the monk Yeongje at Baekdamsa Temple and was given the Buddhist name "Yong-un" with another Buddhist penname, "Manhae."

When Korea's sovereignty was usurped by the 1910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Korean Buddhism faced subjugation to Soto Zen Buddhism from Japan.

To call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n Buddhism from the Japanese,

Han Yong-un convened a national meeting of Buddhist monks at Seunggwangsa Temple in Suncheon, which was unsuccessful in its goal. He then moved to Manchuria and

met independence activists such as Kim Dong-sam and Park Eun-uk, who were training an army to fight for national independence, before coming back to Korea.

In Korea, Han Yong-un published *Joseonbulgyo Hwimyeon* (Reformation of Joseon Buddhism) in 1913, proposing reforms in Korean Buddhism.

In this book, he stressed the need to modernize Buddhism by breaking down the ignominious and antisocial elements and customs of Joseon Buddhism.

In 1914, he wrote *Bulgyo Daegwon* (The Great Tests of Buddhism), based on the Tripitaka Koreana, a collection of Buddhist scriptures, at Tongdosa Temple in Yangju.

This book was his attempt to modernize Buddhism as he suggested in his earlier book, *Jwonnibulgyo Hwadam*.

As the U.S. President Woodrow Wilson's advocacy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in 1918 aroused a desire for national independence in Korea,

Han Yong-un joined as one of 33 national leaders including Choe Hui and Choe Nam-seon to announce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n March 1, 1919.

Han Yong-un was arrested by Japanese police for the event and suffered three years of hardship in prison before being released in 1921.

After that time, he continued to participate in Korean nationalist and independence movements such as supporting the Korean Products Promotion Movement, lea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inganhoe, a Korean nationalist organization, and forming a secret anti-Japanese Buddhist organization called "Mandang."

He also stood at the forefront of protest literature, publishing a collection of his poems titled *The Silence of Love* in 1926.

Despite Japan's repression, Han Yong-un continued to engage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Even his home, which he built in 1933 in Seongbuk-dong, Seoul, and named Simujiang, was built facing north to avoid the sigh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building.

He died at the age of 66, only one year before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01

백제선사전경

1951년

1904

소장처 | 간행처 | 보관처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시되는 전시회 진행이다.

息六十一一年元之望六閏小却果歲月終令
 白髮空風霜無念丹心長轄黃已覺換凡
 骨任病誰知得妙方
 流水生樹老新陽

韜龍雲

02

북강현주공판서

59x105

1997

수장처 | 北江府公판서

眞甲首節樂(본인 최갑연에 즉흥으로 지은 시이다.)
 息六十一一年元(마흔가 지나간 육십 한 해)
 白髮空風霜(이것이 인간의 짧은 생이라니)
 丹心長轄黃已覺換凡(제원은 비록 의발을 잃어 했지만)
 流水生樹老新陽(물살도 나라사왕 마음은 어찌지 못하얏)
 任病誰知得妙方(가난을 지어두나 지미 병문도 바뀐 듯)
 流水生樹老新陽(병을 지음대로 하나 누가 요법 얻은 줄 알지만)
 流水生樹老新陽(물살이 흐르는 의성을 그대로 유지할게)
 流水生樹老新陽(술수의 리미스리 서맛을 탄났)

丁巳十月三日 夜十時 宿 坐禪中
急聞風打馬坊程程計程程仍道去

男兒到處是故鄉

幾人長在客愁中

一棹唱破三千里

雪裡桃花尾上飛

韓龍宮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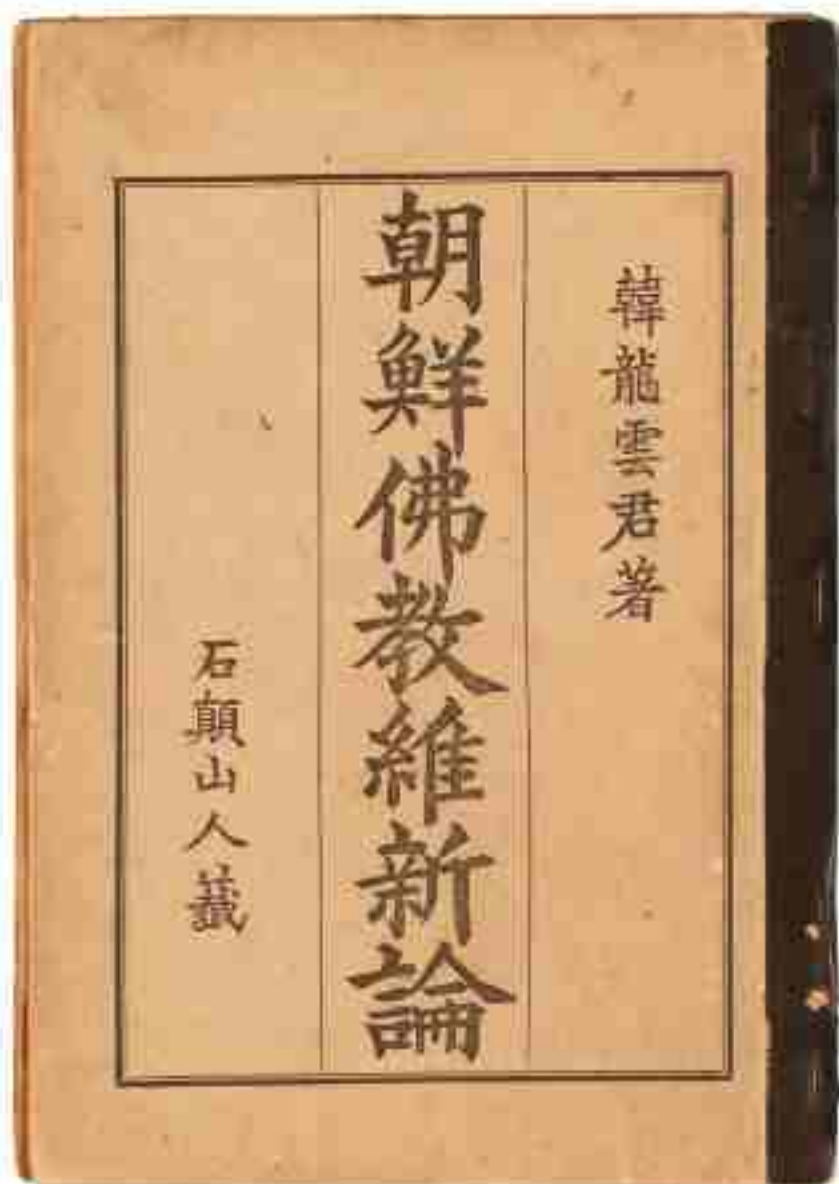
오도승(悟道僧) 진경 서각

39425

소정현 (문헌기록관)

1917년 10월 3일 밤 좌선 중 피상하던 마음이 벗은 듯 풍려
객담승의 시 한수를 지었다.

男兒到處是故鄉(아나이 가는 곳 어디다 고향인 것을)
幾人長在客愁中(그 몇 사람 나그네 근심 갖단 말인가)
一棹唱破三千里(한 마다 운스리 풍려 살판 서게 뒀흔드네)
雪裡桃花尾上飛(눈리 복숭아 꽃 윗기 불기 띄워)



01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敎維新論)

18423.5

1013

조종지(宗敎기념관)

한용운이 당시 불교의 위난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과 이론적 근거를 밝힌 책으로, 덕담사에서 1901, 을고서관에서 1913. 05. 25에 뒤늦으며 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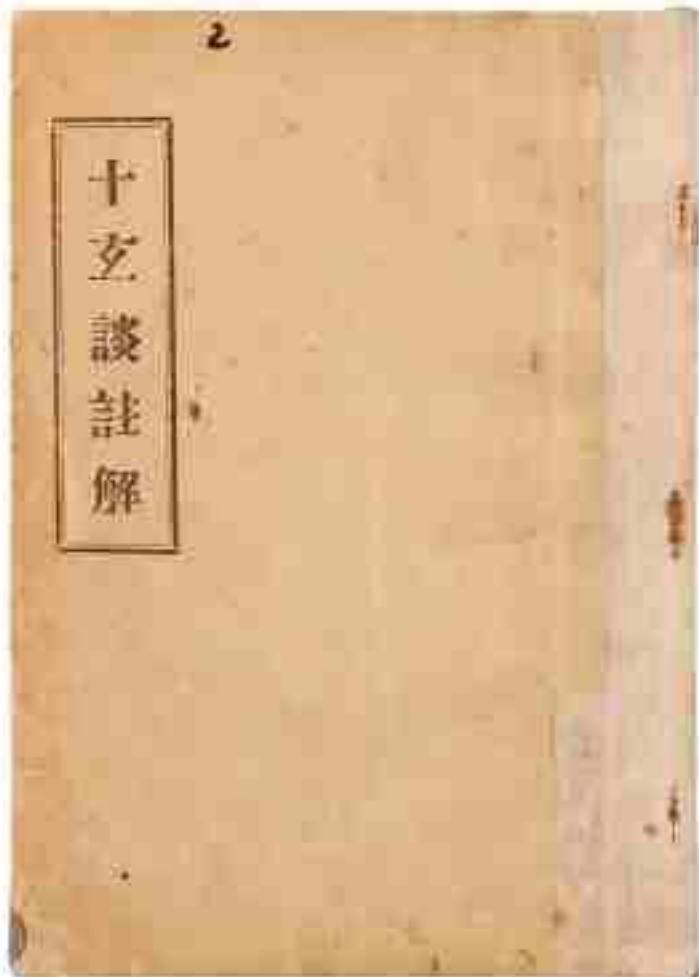
불교대흥(佛敎大興)

11.5×15

1916

순정필 | 광학서방관

민중은이 광판대본영을 제작하여 공개했고 정리한 책이다.
광학 필수의 판권발행에서 벗어나 공개발표 위해서만 최초의 불교성경이다.



06

십현담주해(十玄談註解)

15x11

제25

초판지(판권기록권)

한용운이 중국 상경선사(1894)의 『십현담(十玄談)』을 재봉제 주해한 것이다.
김보희(1993, p. 25)에서 발표되었다.



07

님의 침묵

- ① 44210 | 1925 | 초판지 | 반박어담판
- ② 42,548 | 1934 | 스물지 | 반박어담판
- ③ 43,549 | 1982 | 스물지 | 반박어담판

- ① 1925년 8월 일학간 오세암에서 발간하고 1926년 5월 20일 서울 회문서관에서 최초로 발행한 '님의 침묵'이다. 한글 맞춤법 시행 권의 판본이다.
- ② 1934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이후 최초의 '님의 침묵' 판본이다.
- ③ 2018년 한의 한글 100주년 기념사업을 발간하기 위해 크리한 한학사상연구회에서 간행한 '님의 침묵(沈黙)', 정본이다.



08

경허집(鏡虛集)

18x25.8

조광희 | 한학자닷컴

경허선사(1849-1912)의 문집으로 한송문이 편찬된 책이다.
판각의 적(序)과 약어(略語)가 있다.



09

매화예찬

93x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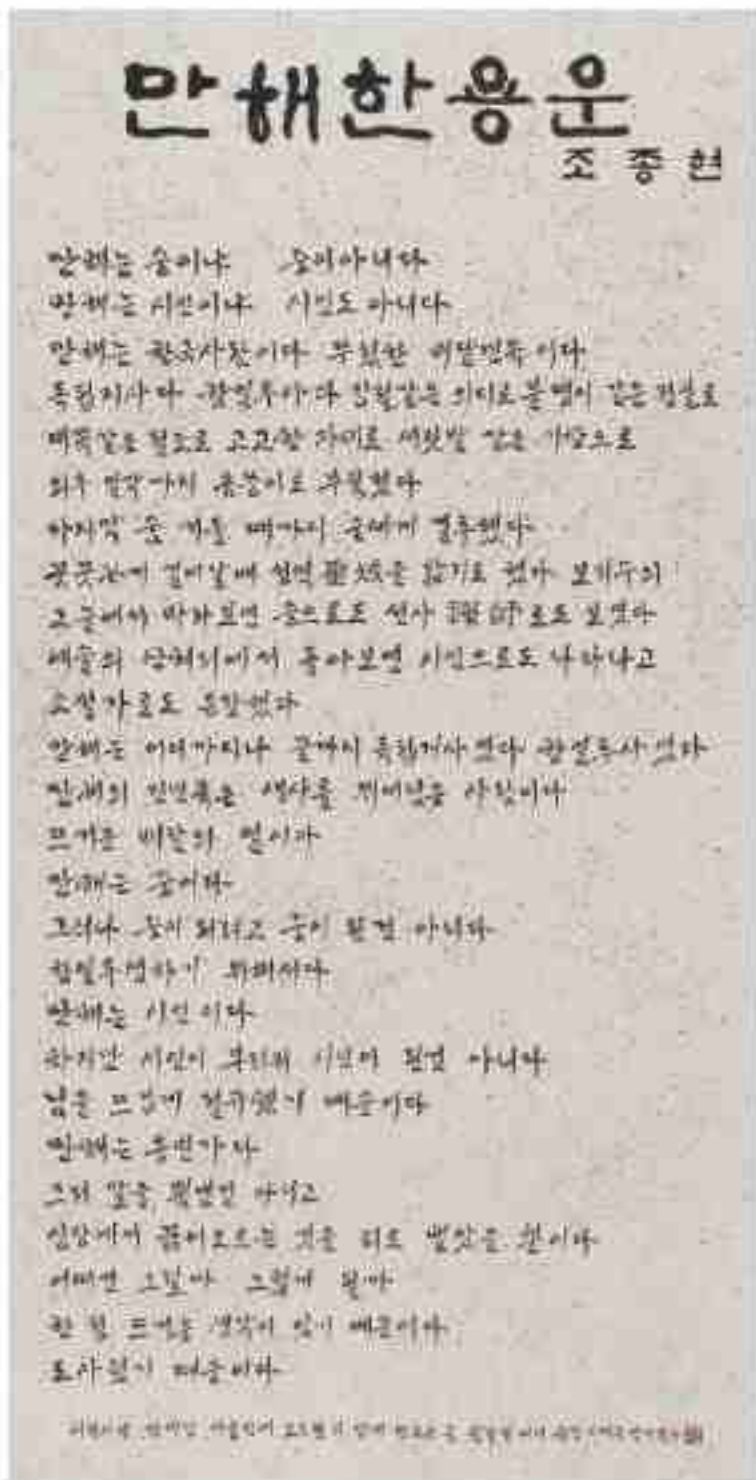
소정화 (문태기실관)

미화를 만가리 만나며 가는
 그대여, 눈 쌓인 길은으로 오게,
 서늘기 입을 같은 때대이거니,
 전생애는 저쪽의 날이었던가,
 낮이 보던 낮대로 기이한 모습,
 밝이라 그 때음이야 어두워지라,
 긴 바람피러 타고 말의 번지고
 파스만 날 천행으로 스미는 향기
 미화로 피어 봄엔에도 지구에는 날기 어리고
 파스만 슬픈 들며 긴긴 밤 짝주는 것,
 지이한 꽃들 언제나 알미를 피고
 붉은 그것 아련 빛갈 따라보는 듯,
 그윽한 잔의 있어 서늘하노니,
 날씨가 지갈다 문을 닫으라,
 강담의 어치려온 따스히 일은
 하여, 미화에겐 말하지 말라,
 씩살며 지기(知音)가 어디 온말가,
 미화를 살피하여 이 밤 곁하라.

한용운의 시 '미화에관'에 응시할 화백이 그림을 그렸다.

만해는 송이나? 송이 아니다.
 만해는 시인이냐? 시인도 아니다.
 만해는 한국 사람이냐. 무분한 비탈진짜이다.
 독립지사다. 항일투사다. 강철 같은 의지로, 불타는 정열로,
 다분 같은 절개로, 고고한 자취로 세갓밭 같은 기상으로,
 최후일각까지 불굴이로 투쟁했다.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글씨를 썼다.
 웃웃하게 걸어들 때 상역(上域)을 밟기도 했다. 보리수처럼
 그늘에서 바라보면 송으로도 천사(天使)로도 보였다.
 예술의 산허리에서 돌아보면 시인으로도 나타나고,
 소설가로도 등장했다.
 만해는 어디까지나 끝까지 독립지사였다. 항일투사였다.
 만해의 권명록은 역사를 뛰어넘는 사상이다.
 뜨거운 배설의 열이다.
 만해는 송이다.
 그러나 송이 되려고 송이 된 건 아니다.
 항일투쟁하기 위해서다.
 만해는 시인이다.
 하지만 시인이 무리히 기쁘어 된 건 아니다.
 남을 뜨겁게 열거했기 때문이다.
 만해는 송인가?
 그의 말을 통변권 아니고
 입장에서 들어오르는 것을 피로 받았을 뿐이다.
 어쩌면 그렇까? 그렇게 될까?
 한 발 뜨거운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도사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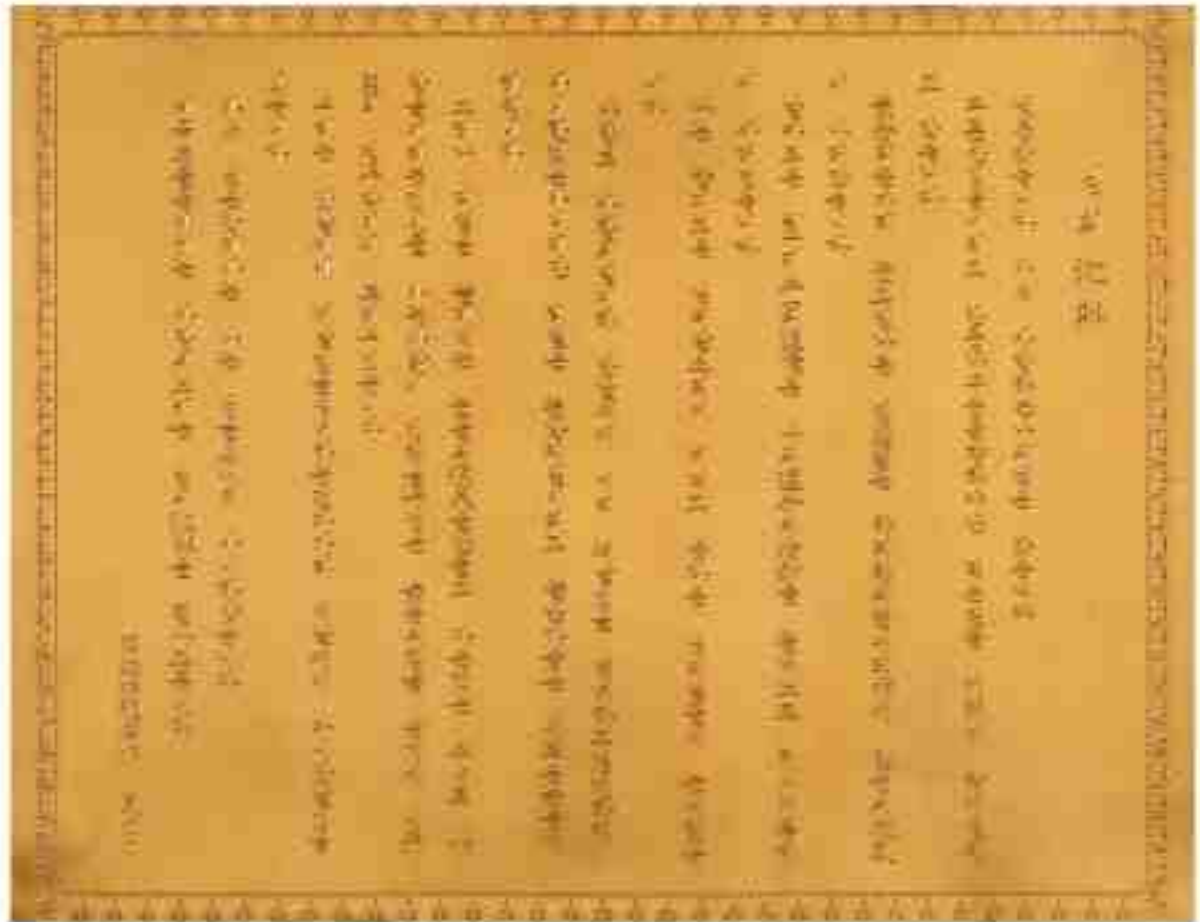
한용운의 제자이자,
 소설가로 정미의 아비지인 조준원이 쓴 것이다.



님의 침묵

김소월

조선총독부고시 제1122호



김소월 작가가 순국도급금관리회의 제공 기금을 차용하여 얻은 금액이다.
1932년 10월 27일 본 회의 집행 부연부 감사관 송의 재직하였다

(서 편지)

님의 침묵

님은 있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있습니다.
주변 산짐을 헤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잊지도 있습니다.
물결의 꽃같이 맑고 밝다면 옛 평지는 지디만 바람이 되어서 반송의 피봉에 남아있습니다.
남기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인생의 지침을 불리하고 잊지않게서 사랑했습니다.
나를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연고 불타는 님의 침묵이 눈물었습니다.
사랑도 사랑의 입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알리라고 정제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사랑의 입이 되고 슬픈 가슴은 쇠로운 슬픔에 적십니다.
그러나 이걸을 불리없는 눈물의 원한을 만지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죽이는 것만 줄
하는 죽음이 감할수 없는 슬픔의 침을 송겨서 제 희망의 강수박이여 끊어부었습니다.
추위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알리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一日與隣房通話為看守亦初聽雙手被輕縛
二分間即吟

隴山鸚鵡能言語
愧我不及彼鳥多
雄辯銀兮沈默金
此金買盡自由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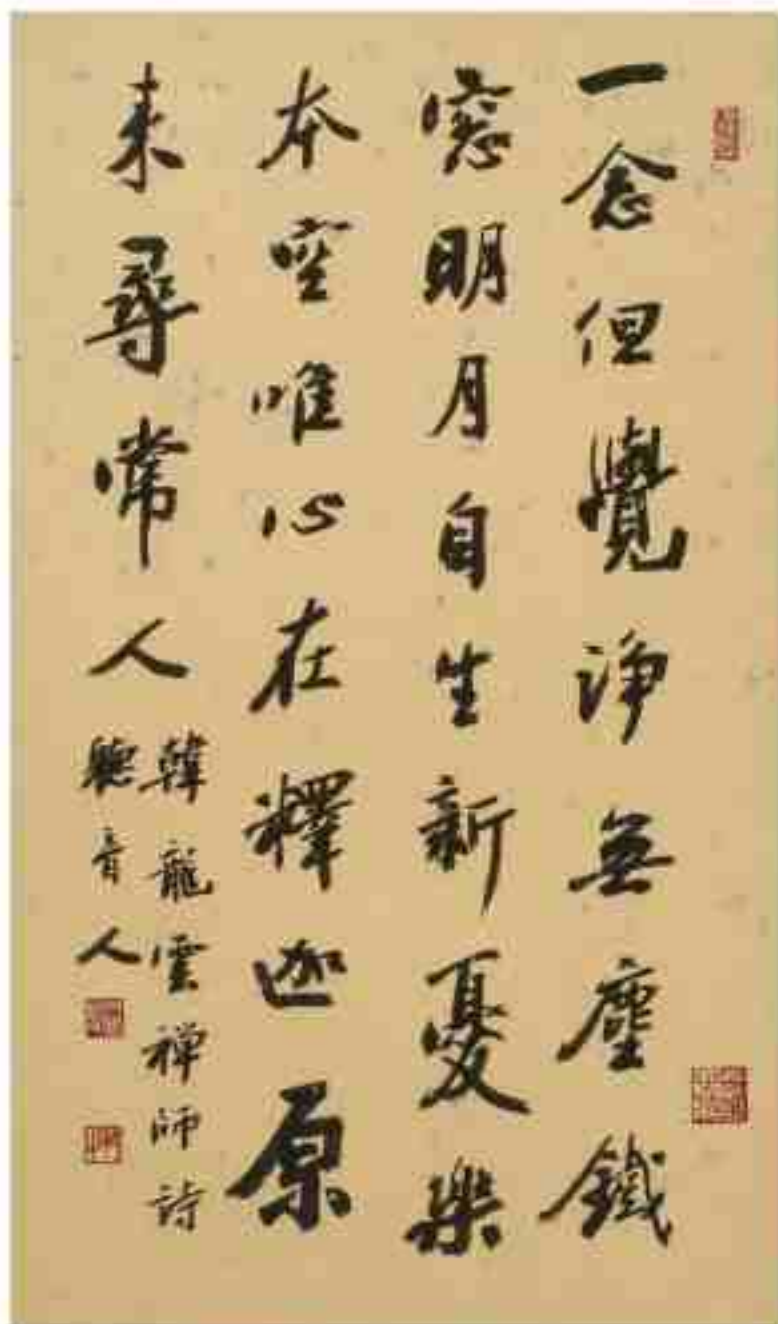
韓龍雲詩

玄珠



육정에서 한문운이 지은 시다.
서체는 전주 스님의 유묵이다.

隴山鸚鵡能言語(충남의 정부재판은 말을 할 줄 아는이)
愧我不及彼鳥多(그 시판도 할 줄 못한 이 참 부끄러워라)
雄辯能兮沈默金(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치면)
此金買盡自由花(이 금으로 자유의 꽃을 볼 할 자고 싶구나)



35

유승환의

5190

조선시대 문헌기록

한용운이 감회를 읊은 유승환의 시이다.

一念但覺淨無塵鐵
 窟明月自生新夏樂
 本空唯心在釋迦原
 未尋常人

백담에서 만난 부처님

Encountering the Buddha at Baekdam

도판 목록

List of Illustration

고려불화



01
관수현반
1490년, 비단 위에 금사재의
조영자 |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 | 기증품



02
관음보살도
1000년경
비단 위에 금사재의
조영자 | 고려불교미술연구소



03
관음보살도
1490년
비단 위에 금사재의
조영자 | 고려불교미술연구소



04
수월관음도
1300년경
비단 위에 금사재의
조영자 | 고려불교미술연구소



05
해수관음
1490년
비단 위에 금사재의
조영자 | 고려불교미술연구소



06
수미다상존도
1300년경
비단 위에 금사재의
조영자 | 고려불교미술연구소



07
관상도
1490년경
비단 위에 금사재의
조영자 | 고려불교미술연구소



08
선가불도
1490년경
비단 위에 금사재의
조영자 | 고려불교미술연구소



99
주살탱화
 275029
 비단 위에 금사채색
 소장처 | 고려불교미술연구소



10
사정탱화
 275032
 비단 위에 금사채색
 소장처 | 고려불교미술연구소



11
불상탱화
 275033
 비단 위에 금사채색
 소장처 | 고려불교미술연구소



12
홍염화
 275044
 비단 위에 금사채색
 소장처 | 고려불교미술연구소



13
삼중도
 275050
 비단 위에 금사채색
 소장처 | 고려불교미술연구소



14
삼십삼화
 275055
 비단 위에 금사채색
 소장처 | 고려불교미술연구소



15
석가불도
 275058
 비단 위에 금사채색
 소장처 | 고려불교미술연구소



16
달카 관공도
 275059
 비단 위에 금사채색
 소장처 | 고려불교미술연구소



17
달카 삼중도
 275066
 비단 위에 금사채색
 소장처 | 고려불교미술연구소



18
달카 비단
 275070
 비단 위에 금사채색
 소장처 | 고려불교미술연구소

백담에서 만난 부처님

Encountering the Buddha at Baekdam

도판 목록

list of illustration

발행권호번호 11875-8440



01
간재 안수전방
115x132
1214
국립중앙박물관



02
회경연주종장서
54x116
1058
국립중앙박물관



03
고도송(高道頌) 원경 사경
119x23
국립중앙박물관



04
조선종교문헌본(朝鮮佛教經新編)
18x25.5
1995
국립중앙박물관



05
종교대전(佛敎大典)
12x24.5
1974
국립중앙박물관



06
십장삼경주해(十誡三經註解)
13x28
1991
국립중앙박물관



07-1
삼부 정주
12x28
1999
국립중앙박물관



07-2
삼부 정주
12x28
1999
국립중앙박물관



07-5
 칠리 불광
 10,340원
 99쪽
 주영희 | 연재기념판



08
 경서집(編成集)
 10,250원
 주영희 | 연재기념판



09
 예화예찬
 9,420원
 주영희 | 연재기념판



10
 겸사 겸재 권유판
 8,920원
 주영희 | 연재기념판



11
 김희 필자 묵경
 10,250원
 주영희 | 연재기념판



12
 동산의 영문해 유곡
 10,250원
 주영희 | 연재기념판



13
 옥공언표
 10,250원
 주영희 | 연재기념판

명 명 1990
문 종 2462
기행·일정 순천수
원 고 순천수
교정·교열 김성진(전주대 명예수사)·김재현(전남대 명예수사)
주석·지휘 장영숙(전국지정위원회)
발 행
개표·정리 순천수 정태성
사 실 2007년
발 행 한국지정위원회
 (55101 광주광역시 동구금곡동 31-1번길 100호)
 TEL 062-329-0001 FAX 062-329-0002
제하·일정 148쪽
 (55101 광주광역시 동구금곡동 31-1번길 100호)
 TEL 062-329-0001 FAX 062-329-0002

© 2007 대한민국지정위원회, 고재홍교대출판연구소(전체저작권)

이 도서에 관한 사후의 모든 재권능(재출판권·고재홍교대출판연구소 전체저작권)은 본지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명 명 1990
문 종 2462
기행·일정 순천수
원 고 순천수
교정·교열 김성진(전주대 명예수사)·최정현(전남대 명예수사)
주석·지휘 장영숙(전국지정위원회)
발 행
개표·정리 순천수 정태성
사 실 조영석
편 직 유근호(주주회장)
 (주주회) 전북44도주주회(정회원) 부회(조영석)
 TEL 063-229-0001 FAX 063-229-0002
제하·일정 1990년
 (주주회) 대한출판문화연구소(주주회) 부회(조영석)
 TEL 042-945-7000 FAX 042-941-8100
발 행

© 1992 태권도 연구재단, 고려대학교출판부(주) (전체가정판)

이 도서에 관한 저작권 관련 태권도연구재단·고려대학교출판부(주) 전체가정판에 동의 없이 인쇄할 수 없습니다.